

삼성-LG, OLED 분쟁 화해 급물살

삼성, 특허소송 4건 중 1건 취하 ... LG 긍정검토에 특허공유 가능성

삼성디스플레이의 전격적인 소 취하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을 놓고 1년 가까이 대립해온 삼성과 LG의 관계가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이 먼저 손길을 내밀면서 LG도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시장에서는 양사가 내친김에 분쟁의 빌미가 됐던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로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모두 4건 가운데 1건이지만 나머지 법적분쟁도 화해를 위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결자해지>를 강조해 왔다.

2012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가처분 신청 이후 양사는 3건의 추가소송을 내면서 법적대립이 심해진 바 있다.

LG는 삼성의 가처분 소송 취하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의 취하 내용을 우선 검토해봐야 한다”며 “LG측에서도 법적분쟁을 끝내기 위한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에 따른 성과로 소송 취하는 물론 특허공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특허공유가 많은 편”이라며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은 특허소송을 벌이다가 특허공유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특허공유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과 LG가 특허공유를 했던 것은 1992년 브라운관 특허 공유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2>